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 제사* -인신공희 설화를 중심으로-

하경지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인신공희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 2.1. 두 사회의 공통점
 - 2.2. 두 사회의 차이점
3. 인신공희 가해자들의 관점 분석
 - 3.1. 서원자의 관점
 - 3.2. 공동체의 관점
4. 인신공희 희생양의 관점 분석
 - 4.1. 아버지와의 관계속에서
 - 4.2. 공동체와의 관계속에서
5. 인신공희에 함축된 의미
6. 나오는 말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549).

**서울한영대학교 객원교수. kyungjiha@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통해 두 문화권에서의 인신 제사를 비교·분석한다. 사회 집단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신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킨다. 선행 연구들은 설화 속의 개별 등장 인물(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고대 사회의 인신공희는 공동체적 행위였기에 가해자의 압박보다는 공동체의 외면과 암묵적 동의로 인해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때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는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한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리려는 희생 제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제어: 인신공희, 심청전, 입다의 딸, 가부장적 사회, 아버지의 서원, 효, 공동체의 무관심

1. 들어가는 말

고대로부터 한 사회 집단이 존속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위기가 닥치곤 했을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큰 위기를 만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면, 초월적 존재인 신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다가 급기야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고대 이스라엘이 속한 고대 레반틴 지역에서도 한 사회 공동체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를 행했다.¹ 비록 인신공희를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구약성서 저자들의 의도로 인해 이 제의에 관한 언급이 모호하게 나타나지만,² 율법서에서 강하게 금지된 제의가 이후 역사서와 예언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은 인신공희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삶의 전반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³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에서도 가뭄, 흉수, 전염병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재앙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흔적들이 문학 작품들 속에 등장한다.⁴ 따라서 아시아 대륙의 양 극단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한국의 고대 인신공희 설화를 통해 두 문화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구약성서에는 인신공희에 관련된 약 25여 개의 본문이 있다. 그중에 이야기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아케다’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

1 Jon D. Levens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The Transformation of Child Sacrifice in Judaism and Christianity*.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1993, p. 16.

2 Naomi Steinberg, “The Problem of Human Sacrifice in War: An Analysis of Judges 11.” *On the Way to Nineveh: Studies in Honor of George M. Landis*. Edited by Stephen L. Cook and S. C. Winter. Scholars Press, Georgia, 1999, p. 114.

3 개신교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구약성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서(「창세기」-「신명기」), 역사서(「여호수아」-「에스더」), 시가서(「욥기」-「아가」), 선지서(「이사야」-「말라기」)로 구성되어 있다.

4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한국민속화보』(제10호), 서울: 한국민속학회, 1999, 168.

삭 이야기(「창세기」 22:1-14)와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사사기」 11:1-40)이다. 이 외에 이스라엘인에 의해 드러진 인신공희는 분열 왕국 시기의 북 왕국 호세아 왕(「열왕기하」 17:17) 및 남 왕국 아하스 왕(「열왕기하」 16:3)와 므낫세 왕(「열왕기하」 21:6)의 통치 기간에 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또한 선지서의 기록들(「이사야」 57:5; 「예레미야」 7:31, 19:5; 「에스겔」 16:20-21, 20:26 등)은 모두 내용이 매우 짧고 간결하며, 더군다나 이야기 형식이 아닌 신학적 관점에서의 통렬한 비난에 그치고 있어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인신공희 주제가 비록 큰 비중은 아니지만(전체 문학의 2~3% 정도), 이따금 등장한다.⁶ 인신공희의 성격에 따라서 대립형(신과의 대결을 통해 사신을 퇴치)과 화합형(제의를 받는 신과 바치는 집단과 바쳐지는 자가 화합하여 제의의 목적을 성취)으로 나뉜다. 총 120여 편의 인신공희 설화 중 87편이 대립형인데 사신에게 바쳐진 자(또는 제삼자가) 사신을 퇴치하는 사신 퇴치 영웅형(「김녕뱀굴」, 「거타지」, 「백일홍」 등)과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사신 퇴치자가 두꺼비라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꺼비 보은형(「두꺼비가 살려준 처녀」 등)이 있다. 나머지 33편은 화합형인데, 내용에 따라 건강·풍요 기원형, 인주형, 주종형이 있다. 건강·풍요 기원형은 말 그대로 건강과 풍요, 비나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인주형(「옹주의 저택지」, 「벽골제」, 「공갈못의 독」)과 주종형(「봉덕사종」 등)은 공통적으로 일의 실패가 반복되자 인신공희의 계시가 주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완성되는 구조를 지닌 설화이다.⁷

구약성서에는 언약 사상으로 인해 한국 설화의 대립형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화합형 설화에 해당하는 인주형이

5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기원전 약 1050-586년)는 통일왕국시대(1050-931)와 분열왕국시대(북 왕조는 기원전 930-722년, 남 왕조는 930-586년)으로 구분된다.

6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33면. 두 국가의 문학에서 인신공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매우 드문 이유는 인신공희가 비정기적이고 소규모의 제의였던 것과 관련 있다. 마야문명에서는 이 제의를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행했으며, 카르타고의 경우는 비상시에 대규모로 인신 제사했지만, 이스라엘과 한국에서는 주로 이따금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행했던 제의였다.

7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70-181면.

나 주종형도 등장하지 않는다. 앞에 언급한 두 인신공희 내러티브(아브라함, 입다)는 공동체의 안전에 속한 이야기이기에 한국의 건강·풍요 기원형과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아버지의 서원이나 신앙에 의한 자녀의 인신공희 주제가 등장한다는 면에서 한국의 『심청전』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두 문화권에서 효는 공통으로 중요한 덕목이기에 아버지의 서원에 대한 자녀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의 가치가 있다. 특히 『심청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신공희 설화로서 『효녀지은설화』와 『거타지설화』, 더 나아가 인도의 『전동자설화』, 『묘법동자전설』 및 일본의 『소야희설화』 등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범세계적 이야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기에⁸ 인류 보편적 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 설화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심청전』(완판본)⁹과 『구약성서』(개역개정)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삭, 입다-그의 딸, 심학규-심청이의 이야기에는 서원자가 아버지이고, 피서원자가 독자(獨子)라는 점, 그리고 피상적으로는 피서원자들이 매우 순응적으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단, 아브라함-이삭의 경우는 다른 두 이야기에 비해 여러 면에서 특이하다. 먼저, 아브라함이 인신공희를 시도한 목적은 야훼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인신공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입다 내러티브 및 『심청전』과 다르다. 따라서 아케다는 인신 제사에 대한 구약성서의 인식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만 인신공희의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개별 인물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입다 내러티브에서 입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학적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자식을 번제로 바쳤다는 점과 관련하여 성서학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긴 힘들었다.¹⁰ 이러한 관점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남성에게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입다의 딸이라는 페미니즘적 해

8 장덕순, 『한국 고전소설』, 계명대학교출판부, 1974, 161-62면.

9 『심청전』(완판본), 정하영 엮음, 한국고전문학전집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0 Daniel Isaac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6, Broadman & Holman, Tennessee, 1999. p. 188.

석이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¹¹ 『심청전』의 경우, 경판본에서는 심청을 주인공으로, 완판본에서는 심학규를 주인공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로 편파적인 연구에 머물렀던 경향이 있었다.¹² 이러한 반성과 함께 조동일, 최래옥, 천이두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그 두 인물 사이에 어느 한 인물을 선택하기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천이두는 『심청전』의 주제를 ‘한’으로 보며, 심청에게는 ‘한의 성취’의 과정이며, 심학규에게는 ‘한의 삭임’의 과정으로 해석한다.¹³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선 사회적·공동체적 맥락에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를 함께 고찰한 선행 연구들도 드물게 있다. 가장 이른 연구는 박정세(1996)가 아케다와 한국의 「벼락 맞은 아버지 전설」을 비교한 것이다.¹⁴ 이 연구에서는 아브라함이 인신공희를 통해 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게 된 점과 아버지(김서방)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팔아 버림으로써 신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대조한다. 최운식(1998)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아케다를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전의 어린이 희생을 동물 희생으로 대치하게 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⁵ 천사무엘¹⁶(2003)은 입다의 딸이 심청이처럼 효를 실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수연(2015)은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의 관점에서 두 이야기를 간략히 분석하였다.¹⁷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개별 인물들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필자는 설화 속의 인물들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11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linois, 1988, pp. 128-129

12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39-40면.

13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154-156면.

14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15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93-194면. 하지만 본 연구자는 야훼의 이삭번제 요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이해한다.

16 Samuel Cheon, “Reconsidering Jephthah’s Story in a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American Theology* 6 (2003-2004), pp. 30-45.

17 조수연, 『심청전에 숨은 심리학적 이야기: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 이담, 2015, 141-143면

있다고 본다. 유평의 지적처럼, 심청의 모습을 효에만 제한한다면 인간의 더 심층적인 면을 성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¹⁸ 본 연구는 인신 공희의 희생양이 된 두 딸의 행동을 아버지에 대한 효의 실천으로 보기보다 두 여성이 속한 공동체의 암묵적 동의로 인한 희생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물론 내러티브 자체에는 공동체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황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고대 사회의 인신공희는 주로 공동체에 의해 행해진 제의인 만큼 개인에 대한 폭력의 관점보다는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의 차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2. 인신공희의 시대적·문화적 배경

2.1. 두 사회의 공통점

인신공희는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아브라함이나 입다 이야기의 배경은 체계적인 정부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사회였다. 물이 풍부했던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물이 턱없이 부족했던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은 기근과 우물로 인해 부족들간의 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창세기」 21:25). 입다의 시대도 아직 이스라엘에 왕정이 들어서기 전, 각 씨족의 대표(사사, Judges)가 지역적으로 다스리던 불안정한 시기였다. 또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신 제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던 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어 신아시리아(기원전 850-612)와 신바빌로니아(기원전 605-539)와 같은 제국의 세력들이 군사적·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들을 보면 불안정한 국가적·사회적 상황이 먼저 소개된다. 『심청전』 또한 조선조 후기의 혼란스러웠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때는 조선 중기 이후 격화된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나 임병양란 이후의 경제적 궁핍, 그리고 신분제의 동요나 붕괴에

18 유평, 「고전문학을 넘어 신화로 회귀하기: 『연인 심청』에 나타난 종교적 인간, 『문학과 종교』 21.1, 2016, 111면.

직면했던 시기였다. 특히 사대부 계급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계 중심으로 친족 집단을 배타적으로 조직화했던 시기였다.¹⁹ 동시에 심청이의 마을 공동체가 처한 직접적인 위기는 뱃사공들을 위협하는 파도와 급류로 야기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 지속되는 가뭄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예를 들어, 「비룡폭포와 육단폭포의 적교」, 「태종우」 등).²⁰

또한 두 국가가 남성중심적 사회였음을 고려하면, 여성은 약자적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한국의 조선조 말기 문화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경우는 부모나 남편 중 한쪽이 그녀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사회적 보호막이 없었기에 더욱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¹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사회는 공통적으로 효를 중시하는 문화였다.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인 십계명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5-10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제5계명)이다. 이처럼 부모는 이 땅에서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며, 고대 사회에서 모든 권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의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부모에 대한 효도가 매우 중시되었던 배경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인 자녀들의 입지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2.2. 두 사회의 차이점

두 국가 사이의 차이점은 공동체의 위기 시에 누가 인신 제물이 되었

19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 『민족문화사 강좌』(상), 창비, 1995, 274면.

20 약 11편가량 되는 한국의 건강·풍요 기원형 설화들은 마을의 건강과 풍요의 기원(1편), 비의 기원(3편), 해상안전 기원(7편)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170면.

21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구약논단』 49, 2013, 111면.

느냐에서 크게 드러난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지도자의 자녀가 제물로 희생되었다. 아브라함과 입다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와 남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 인신공희를 행했다.²²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는 국가적 비상시에 후계자가 될 지도자의 자녀가 희생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예를 들어, 모압 왕 메사의 경우도 전쟁에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이르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 아들은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아들”이었다(「열왕기하」 3:27). 인신 제사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기 보다는 공동체의 대표가 자기 자녀를 바쳐 국가적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회적 기능(a social function)을 위한 제의였다.²³

이에 비해, 한국 설화에서는 주로 가난한 가정에 속한 자녀 하층계급의 자녀가 인신 제물이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²⁴ 대립형과 화합형을 막론하고, 공동체에 닥친 곤경 속에서 누군가가 인신공희로 바쳐져야 할 때, 그 동네 사람 중 가난한 부모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돈을 받고 자식을 제물로 파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예를 들어, 「에밀레중」, 「벼락맞은 아버지」). 예외적으로, 조선 태종 말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왕이 스스로 제물이 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태종우(太宗雨)」),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 대표의 자녀(후계자)가 아니라 주로 사회 취약계층의 자녀, 특히 어린 소녀가 제물로 바쳐진다.

이런 면에서 구약성서에서 입다의 딸(여성)이 인신 제물이 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녀가 희생양이 된 것은 입다에게 그녀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녀가 단지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목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훼가 요구한 제의였던 반면, 입다의 경우는 그가 독단적으로 행한 제의였다.²⁵ 입다에게

22 역사서와 선지서의 경우를 보면, 이 제의는 몰락과 바알과 같은 이방신을 위해 행해졌는데 실제로 아이를 바친 인신공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원이나 점술과 같은 제의적인 맥락에서 치명적이지 않은(non-lethal) 선에서 아이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ennsylvania, 1996, p. 465.

23 Steinberg, “The Problem of Human Sacrifice in War: An Analysis of Judges 11”, p. 128.

24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48면.

외동딸이 아닌 외동아들이 있었다면 그도 희생 제물이 되었을 것이다. 구약성서엔 입다의 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들’이나 ‘자녀’ (아들과 딸이 동시에)가 희생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성 홀로 희생이 된 경우는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설화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두 국가에서 인신공희에 함축된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인신공희의 가해자인 아버지와 이를 방관하거나 내지는 무언의 동의를 한 공동체,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될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 설화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였다.

	입다 내러티브	심청전
장르	영웅이야기(+ 효 모티프)	효이야기 (+ 개안 모티프)
시대적 배경	정치적 혼란기(사사 시대)	정치적 혼란기 (조선조 말기)
사회적 배경	가부장적(효 중시) 야훼이즘(종교+ 문화)	가부장적(효 중시) 불교(종교)+ 유교(문화)
서원자	아버지(서자 출신)	아버지 (몰락한 양반 가문)
피서원자	무남독녀(*지도자의 자녀)	무남독녀 (*일반인의 자녀)
*서원 내용	사람의 생명	공양미 삼백석
*서원 조건	전쟁 승리	개안(開眼)
서원 속성	개인적 욕망, 종교적, 공식적	개인적 욕망, 종교적, 공식적
서원 목적	신분 상승(지도자)	신분 상승(장애 극복)
공동체 태도	피서원자에 대해 방관적(침묵)	피서원자에 대해

25 따라서 야훼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시작할 찰나에 이삭을 구해주었던 반면, 입다의 딸을 구해주지 않은 것이 야훼의 남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은 근거가 약하다. 참조: Cheryl Exum,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pp. 45-69.

		방관적(침묵)
*공동체 위기 내용	군사적 위기	해상 위기
공동체 결말	위기 극복	위기 극복
*희생 결말	매년 기념됨	연꽃 속에서 부활됨

3. 인신공희 가해자들의 관점 분석

두 설화에 있어서 서원자인 아버지와 피서원자인 딸의 죽음에 대해 목인한 공동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가해자에 해당한다. 이 단락에서는 두 가해자들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말과 행동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3.1. 서원자(아버지)의 관점

먼저, 두 아버지(입다와 심학규)는 자녀 희생에 있어서 일차적인 가해자이다. 이들의 서원 행위가 없었다면 그들의 자녀는 희생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서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들의 서원은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었다. 입다의 경우는 굳이 서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서원을 하기 전에 이미 야훼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야훼의 영이 임한 것은 「사사기」 전체 내러티브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3:10 옷니엘; 6:34 기드온; 11:29 입다; 14:6 삼손). 하지만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신의 성공(즉, 길르앗 공동체의 「머리와 장관」이 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서원을 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사사기」 11:30-31) 이로 인해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나오게 될 가족 중 한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했다.²⁶

심학규의 서원은 그에게 절박한 것이었겠지만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동시에 지나친 것이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각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전적으로 어린 외동딸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였기에, 그가 무심코 내뱉은 서원의 짐은 고스란히 그의 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나중에는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서원은 그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었다(완판본, 124).

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었다. 입다의 경우는 서자로 태어나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집에서 쫓겨났었다. 그 후 그는 외국 땅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장로들에 의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그는 야훼를 향한 신앙심이나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애국심에 이끌려 전쟁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 기회를 이용하였다(「사사기」 11:9). 심학규는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스무 살이 못 되어 눈까지 멀게 되었다(완판본 75). 체면을 중시하던 유교 문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매우 따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개안(開眼)에 대한 바람은, 그것이 그가 시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정상인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두 아버지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神)을 연루시켰다. 입다는 야훼를 끌어들였으며, 심학규는 조선 시대에 유교 문화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명맥을 유지해 온 불교의 부처를 끌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정상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입다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야훼 신앙에서 비롯되었

26 입다가 자신의 딸이 실제적으로 죽어서 번제로 드렸는지에 대해 문자적인 해석 외에도 상징적인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사사기」 11:38). 참조. 김남일, 「정황이해를 통한 성서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사사기 11장 입다의 인신제사)」, 『갱신과 부흥』 21, 2018, 39-40면. 하지만 필자는 구약성서에서 번제를 상징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없기에, 또한 입다의 희생이 정통 야훼신앙이 아닌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른 것이기에 문자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고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영적 퇴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서원 행위는 그저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입다의 행동은 야훼 신앙이 아닌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었던 관습이었다.²⁷ 심학규의 행동 또한 정통 불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장덕순은 실제로 “공양미 삼백 석이 어떠한 효험도 나타내주지 못하고, 몽운사의 화주승 또한 흑세무민의 비방의 대상”으로 풍자한다.²⁸ 이러한 점에서 두 아버지의 서원은 당시 국가종교였던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나 한국의 불교 신앙을 제대로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들과 공존했던 민간의 무속신앙에 의한 서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²⁹

셋째, 그들의 서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성격까지 지녔다. 입다의 경우는 전쟁의 지휘관이자 길르앗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했던 서원이었기에 개인적 행위로 취급하기보다는 공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심학규의 경우는 승려 앞에서 서원했다는 점에서 종교적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서원 내용은 사찰의 공양 명단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완판본 111). 따라서 두 인물의 서원은 당사자 외에도 그 서원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압박감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들의 서원은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지도자 신분이었던 입다는 물론이고, 이미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조선 시대의 가장(家長) 심학규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심학규의 서원을 들은 화주승은 “이보시오, 댁의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삼백 석을 무슨 수로 장만하겠소”라고 하자 오히려 심학규는 날을 세우며 따지는 자세를 취했다(완판본 111). 화주승의 질책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었지만, 심학규는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신의 체면을 애써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두 아버지에게 있어서 만약 자신들의 서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회적 체면과 지도자 및 가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를 맞게 될

27 박종수, 『구약성서 역사이야기』, 한들, 2002, 179-180면.

28 장덕순, 『한국고전소설』, 166면.

29 심우장, 「효행 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10, 2007, 197면.

것이였다.

3.2. 공동체의 관점

비록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 딸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의 동의 과정이 있었음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나레이터는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보통 인신공희는 한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한 제의이다. 물론 공동체가 여성의 죽음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드러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모습도 없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이는 두 설화에서 여성들이 죽을 운명에 놓였을 때 각 공동체가 이전에 보여왔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공동체의 매우 다른 태도를 감지할 수 있다.

길르앗 공동체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공동체의 대표인 장로들이 주도해 왔다. 그들은 과거에 입다를 쫓아내는 일, 다시 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도 관여했다(「사사기」 11:7).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딸을 희생한 것이 한 부족의 우두머리로서 행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³⁰ 사실 입다는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조건으로 장로들에 의해 임시로 추대된 신세였다. 입다에게 닥친 문제에 관하여 장로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그들의 암묵적 동의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겠다. 장로들의 무거운 침묵은 입다의 딸이 희생되기 전 두 달간의 유예기간 동안 함께 있어 주었던 여성 친구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청이도 공동체가 그녀의 슬픈 운명 앞에서 끝내 침묵했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희생 제물이 된 것이였다. 이전에 곱 씨 부인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여 눈물을 흘리면서, “음전하던 곱 씨 부인 불쌍히도 죽었구나. 우리 동네 백여 집이 십시일반으로 장례나 치러주세”라며 적극성을 보였었다(완판본, 91).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양미 삼백 석이 장승상 부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

30 Alice Logan, “Rehabilitating Jephthah,” JBL 4 (2009): pp. 665–685.

였음을 고려하면,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었을 법하다. 하지만 심청이를 위해 아무도 나서 주지 않고 모두 끝까지 침묵한다. 따라서 심청이의 죽음은 단순히 공양미 삼백석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공동체로부터의 도움의 부재가 불러온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두 공동체는 왜 그들의 젊은 여성의 희생을 막지 않았을까? 입다는 자신의 딸의 슬픈 운명으로 인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사람들 앞에서 토로하였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사사기」 11:35).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 「레위기」 5:4-6의 규례에 따르면 그 서원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취소될 수 있었지만, 공동체원 중 누구도 이 규례를 상기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율법의 규정이 아닌 입다의 인신공희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무속신앙에 몰들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두려움 속에서 서자 출신 입다의 딸의 희생 즈음은 그 공동체에서 그다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학규 또한 입다처럼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애원하였지만 어떠한 호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심청이를 데려가는 뱃사공들을 말리며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나? 여보시오 동네 사람,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오?”(완판본 127)라고 절규하며 외쳤지만 그들 중 아무도 나서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심청이의 죽음이 바다의 급류와 거센 풍랑이라는 마을 전체의 위기와의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풍랑은 어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지속적인 어획의 실패는 공동체의 삶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관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그들의 관점에서, 누군가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희생되어서 성난 바다를 잠재워야만 했기에, 이런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한 여성, 그것도 몰락한 시각 장애인의 딸을 향한 동정심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 닥친 위기와 관련하여 그 구성원 전체의 생명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 구성원을 돌아볼 겨를이 없

었다. 더군다나 그 구성원은 그들에게는 없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두 여성이 죽을 운명에 놓인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서원이 텅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희생 제의에는 공동체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 따라서 필자는 서원자인 아버지 못지않게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침묵과 방관으로서 피서원자인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라고 본다. 두 공동체는 전쟁과 풍랑의 위협이라는 위기 속에 그들의 약자인 여성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가해자였다.

4. 인신공희 희생양의 관점 분석

두 공동체 모두 가부장적 사회인만큼 여성은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피서원자였던 두 여성은 단지 체념한 채 수동적으로 죽음에 내몰린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두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그들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와 그들이 보인 행동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4.1.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먼저, 두 딸은 평소 아버지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볼 때 불행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입다의 딸의 시선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과거에 가정과 마을에서 퇴출당하여 타향살이하며, 한때 잡류들의 두목이었다가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존경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심청의 시선에서 몰락한 양반인 자신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개안(開眼)은 그가 그런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31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 2009, 47면.

하지만 문학은 두 딸의 입장이 두 아버지에게 비해 훨씬 더 비참했음을 비춰주고 있다. 입다 내러티브의 중반까지는 독자에게 가장 불행한 인물인 입다로 비춰졌을지 몰라도 그의 딸의 등장으로 인해 독자들의 측은지심은 그녀에게로 향하게 된다.³² 그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입다보다 더욱 불행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녀의 할머니는 창기였다. 내러티브상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존재 여부마저 불확실하며, 처녀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사회적 보호막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아버지는 오히려 그녀를 원망하며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다.

그럼 입다의 딸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저 순응한 것일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녀는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위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사사기」 11:36).

여기서 입다의 딸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버지에게 의해 좌초된 일이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이 서원이 아버지가 야훼를 위해 한 것이며, 야훼 또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철저히 분리시키며 강한 어조로 대항하고 있다.³³ 더 나아가, 그녀는 야훼를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잘못된 신앙마저 비웃고 있는 듯하다.

심청의 경우 또한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욱 큰 억눌림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부모의

32 V. C. Cooper,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44 (2003), pp. 181-91.

33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20, p. 151.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막 태어난 심청을 보며 “공을 들어 늘그막에 얻은 자식이 딸이란 말이오!”라며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완판본 83). 더군다나, 어머니가 출산 시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 일찍 죽게 된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의 삶이 더욱 불행해졌다고 원망했을 때 그녀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을 것이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심청이 유교 사상에 따라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쳤다는 해석은 지나쳐 보인다.³⁵ 심청이 처음 아버지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먼저 했는데(완판본 114), 어린 나이의 심청이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오히려 효의 맹목적이고 지나친 면이 부각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는 날에 심학규는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절규할 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마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나 전하고, 못한 딸자식은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이도 또한 천명이니 후회할들 어찌 하겠어요?”(완판본 127).

이상일은 여기서 마지막 발화의 주어를 심청이가 아닌 심학규로 볼 경우, 이 발화의 의미는 “아버지께서는 저를 배반한 것을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다.³⁶ 즉, 심학규의 무리한 서원은 부녀의 관계에 대한 배반이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에 치명적인 금이 간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통해 단순히 효행의 관점이 아닌 내면화된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34 최현주, 인물의 심리분석을 통한 『심청전』 재독, 『한국고전연구』5, 1999, 45면.

35 김경완, 「〈심청전〉 해석의 한 시도-기독교적 조명」, 『문학과 종교』 1, 1995, 265면.

36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 (2015), 109면.

4.2.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두 딸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의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인으로써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여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개인적인 대화를 넘어 공동체와의 대화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배경을 고려하면, 그와 그의 딸이 대화한 현장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씨족사회의 특성상 그 둘의 대화의 내용은 금방 소문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공경과 남성의 주도성이 팽배한 사회에서 입다의 딸은 그저 힘없는 여성에 불과했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의 특성상 공동체에서 가졌을 사회적 기대가 그 집단의 취약계층인 젊은 여성들에게 효를 다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여성들은 이미 주어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³⁷ 더욱이 그들이 죽음을 선택한 배후에는 사회로부터의 무언의 강요가 어느 정도 느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간접적으로 강요된, 그리고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교육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순응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자발적 의사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갔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행동 저변에는 도전과 순응이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사사기」 11:36-37). 그녀가 그저 수동적이었다면,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과는 무관한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보인 능동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정혜는 입다의 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기간을 갖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죽음

37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어문학』 31, 1996, 70-71면.

에 대해서도 못다 한 삶의 한을 풀어내고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해석한다.³⁸

심청이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인다. 만약 그녀가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녀는 장승상택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거두절미했다. 마침내 뱃사람들에게 끌려 가는 날에도 그녀는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라며 자신의 의지를 나타냈다(완판본 123). 두 문학은 피서원자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넉지시 보여준다.³⁹

그럼, 이들이 비자발적이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간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들은 살아남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딸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한 행동은 두 달간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서원에 순응하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심청이의 상황도 사회문화적 상황속에서 조명해야 한다. 장영란은 그녀가 공양미 삼백 석을 주겠다는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이었다고 해석한다.⁴⁰ 하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만약 심청이 살아남았을 때, 더군다나 아버지를 떠나 천륜을 저버리고 남의 수양딸이 되어 살았을 때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시선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목숨이야 건졌겠지만,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고통

38 이정혜, 「입다의 딸에 대한 연구: 그의 한과 한국 무속신앙에 나타난 한풀이 고찰」, 『기독교사상』 423, 1994, 226면.

39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48-151.

40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2008, 19면.

스러웠을 것이다.⁴¹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개안을 했을 경우, 자신의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남의 집 수양딸로 살아 간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지탄이 될 일이었을 것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소원성취를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여전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임은 인지상정이다. 그녀도 아버지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라는 대사를 통해 자신의 신세와 변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완판본 125). 이 장면에 대해 최래옥은 “심청이가 살고 싶어 고민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분석한다.⁴²

심청이의 공동체에서 그녀를 도울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사회적 매정함을 암시한다. 장승상 부인의 제안은 심청이를 수양딸로 삼고 싶은 자신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고,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순수한 도움의 손길이 부재함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설화의 인신 공희를 여성에게 가해진 한 남성에게 의한 희생이나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체의 방관과 묵인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전체’가 여성을 희생양 삼는 만장일치적 폭력에 가담한 ‘공모자’이자, 은폐된 ‘주모자’일 것이다.⁴³

5. 인신공희에 함축된 의미

이제 아버지의 서원과 공동체의 묵인의 동조로 인해 희생된 여성들로 인해 서원자와 공동체, 그리고 피서원자인 희생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희생에 함축된 의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원자였던 두 아버지는 딸들의 인신공희로 인해 자신들의 개

41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54.

42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52-53면.

43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113면.

인적 욕망을 성취할 수 있었다. 입다는 길르앗의 대표가 되었다. 심학규 또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개안)을 이루었다. 결국 딸들의 희생으로 인해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의 두 아버지의 신분 상승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⁴⁴ 무엇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 또는 지도자로서 남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면에서 문학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이 두 설화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두 설화가 사사시대와 조선조 말기라는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버지가 서자와 장애인이라는 비정상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만약 입다가 서자로서의 한이 없던 인물이었다면 그리고 심학규가 장애인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굳이 무리한 서원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여성의 희생은 과멸이라는 재앙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영수의 표현처럼, 인신공희는 위기 시에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한 사회적 결의에 의한 제의였다.⁴⁵ 결과적으로 이 제의가 겨냥했던 목표는 잘 성취되었다. 비록 이 여성들의 죽음이 자신의 공동체를 구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여 희생을 결단한 이 여성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해주어 군사적 위기와 해상 위기가 극복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서원자들인 여성들의 희생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 우선, 그들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정리하며 묵묵히 죽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단된 희생의 모습으로 인해 사회는 그

44 하지만 소원을 성취한 두 아버지의 이후의 삶은 또한 비극 자체였다. 입다는 내전을 일으켜 동족상잔의 비극을 주도한 인물로 그려지며, 심학규 또한 개안 이후 홀로 더욱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 이는 그들의 소원이 결국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45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87면.

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다.⁴⁶ 동정과 연민을 넘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이 여성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를 수 없었던 자신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말 뜻밖의 결과였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입다의 딸을 위해 매년 나흘씩 제의를 행하게 되었다(「사사기」11:40). 군사적 영웅이었던 입다가 아닌 그의 딸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도 없는 한 여성이 기념의 대상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다.⁴⁷ 또한 이경숙은 여성들이 연대하여 매년 입다의 딸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을 통해 여성 희생 제의가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되었다고 해석한다.⁴⁸ 필자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구약성서에서 여성이 홀로 인신공희의 대상이 된 경우는 입다의 딸이 유일하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더욱 위대한, 예상외의 결과는 심청에게도 일어났다. 그녀에게 인당수는 자신이 살아왔던 가혹한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장소였다.⁴⁹ 하지만 그곳에서의 죽음은 그녀가 전혀 다른 신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녀의 마을에서 더 이상 처녀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도화동 마을 사람들이 타루비(墮淚碑)를 세워 그녀를 기념하였다(완판본, 161). 입다의 딸과 심청의 희생은 심지어 오늘날까지 히브리 문학인 구약성서와 한국 고전문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46 Kyungji Ha,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 164.

47 Phyllis Trible, "The Daughter of Jephthah: An Inhuman Sacrific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Fortress, Philadelphia, 1984, pp. 110-15.

48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422, 1994.2, 200면.

49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112면

6. 나오는 말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인신공희를 행했다. 이 제의의 가해자는 표면상으로는 군사적 리더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대표로도 볼 수도 있으나 그 배후에 공동체의 목인과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 가능했던 제의였다. 인신공희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동체를 파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신공희가 여전히 비극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들의 구성원들, 특히 사회의 가장 취약층에 속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공동체 안의 약자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기대와 동의가 이 제의의 가장 어두운 면일 것이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희생과 이에 대한 목인에 대해 과감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문화가 지속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입다의 딸 이야기와 『심청전』은 인신공희의 사회적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폭로하는 기능을 문학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과 한국의 인신공희 설화 중에서 서원자인 아버지와 공동체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피서원자들에게 행해진 인신공희 설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외의 경우들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됨으로써 인신공희를 둘러싼 문학과 문화적 연구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Human Sacrifice in Ancient Israel and Korea (Based on Human Sacrifice Narratives)

Ha, Kyungji(Seoul Hanyoung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n inquiry into the human sacrifice stories in ancient Israel and Korea. Although human sacrifice was never systemized in both countries, narratives convey the theme especially in stories that involve filial relations. Despite geographical and temporal dista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research finds similarities in the women's sacrificial death, and attributes these similarities to a custom common to human societies. This anthropological approach sheds light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 ritual: it was to overcome the communal crisis and guarantee the whole lives by sacrificing one life—not just to victimize it. Yet, it is unjustifiable to take the sacrifice of the social weaker for granted. Obviously, it was improbable in these societies to sanction the sacrifice of an innocent person unless there was social pressure in the patriarchal culture.

KeyWords: Human Sacrifice, Shimchung-jeon, Jephthah's daughter, Patriarchal society, Pledge of father, Filial Piety(hyo), Indifference of community

[참고문헌]

■ 기본자료

『성경 전서』(개역개정), 대한성서공회, 1998.

『심청전』(완판본), 정하영 엮음, 한국고전전문학전집 1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 단행본

박정세, 『성서와 한국 민담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박종수, 『구약성서 역사이야기』, 한들, 2002.

장덕순, 『한국고전소설』, 계명대학교출판부, 1974.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전」,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민족문학사 강좌』(상), 창비, 1995.

조수연, 『심청전에 숨은 심리학적 이야기: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 이담, 2015.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최태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37-76면.

최운식, 「인신공희 설화 연구」, 『한국민속화보』(제10호), 서울: 한국민속학회, 1999, 167-205면.

Bal, Mieke.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llinois, 1988.

Block, Daniel Isaac.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6. Broadman & Holman, Tennessee, 1999.

Day, P. L. "From the Child is Born the Woman: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Ge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Fortress, Minneapolis, 1989, p. 58-74.

Exum, Cheryl.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Levenson, Jon D.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Beloved Son: The Transformation of Child Sacrifice in Judaism and Christianity*. Yale University Press, Connecticut, 1993.

Steinberg, Naomi. "The Problem of Human Sacrifice in War: An Analysis of Judges 11." *On the Way to Nineveh: Studies in Honor of George M. Landis*. Edited by Stephen L. Cook and S. C. Winter. Scholars Press, Goergia, 1999, p. 114-35.

Tigay, Jeffrey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Pennsylvania, 1996.

Trible, Phyllis. "The Daughter of Jephthah: An Inhuman Sacrific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Fortress, Philadelphia, 1984, p. 93-115.

■ 논문

김경완, 「〈심청전〉 해석의 한 시도-기독교적 조명」, 『문학과 종교』 1, 1995, 265-291면.

김남일, 「정황이해를 통한 성경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사사기 11장 입다의 인신제사)」, 『갱신과 부흥』 21, 2018, 214-239면.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 2009, 29-51면.

심우장, 「효행 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10, 2007, 175-203면.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 바리공주 지네장터 심청전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30.4, 2002, 117-42면.

유요한, 「고전문학을 넘어 신화로 회귀하기: 『연인 심청』에 나타난 종교적 인간」, 『문학과 종교』 21.1, 2016, 109-28면.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422, 1994.2, 192-202면.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 (2015), 101-129면.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회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 2000, 81-117면.

이운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구약논단』 49, 2013, 96-121면.

이정혜, 「입다의 딸에 대한 연구: 그의 한과 한국 무속신앙에 나타난 한풀이 고찰」, 『기독교사상』 423, 1994, 209-36면.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9, 2008, 1-29면.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어문학』 31, 1996, 51-71면.

최현주, 「인물의 심리분석을 통한 『심청전』 재독」, 『한국고전연구』 5, 1999, 37-59면.

Cheon, Samuel. "Reconsidering Jephthah's Story in an Asian Perspective",

Journal of Asian American Theology 6 (2003-2004), pp. 30-45.

Cooper, V. C. "Some Place to Cry: Jephthah's Daughter and the Double Dilemma of Black Women in Americ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44 (2003), pp. 181-191.

Ha, Kyungji. "Reading the Jephthah Narrative from an Asian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20.

Logan, Alice. "Rehabilitating Jephth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 (2009), pp. 665-685.

Ries, Pamela T. "Spoiled Child: A Fresh Look at Jephthah's Daughter", Prooftexts 17 (1997), pp. 279-298.